

## 언어의 뿌리를 보다

| 장태영 | 박인수 인터뷰 |

이 글에 소개되는 장태영 선생의 체험은 한국어꺼짐모드 영어학습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험 이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5년을 보낸 다음, 선생은 우연한 기회에 처음으로 저에게 체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명상과 학습을 통합해보려 애쓰고 있던 저로서는 그 우연한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지요. 선생의 체험은 바로 제가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체험을 영어학습의 장에서 재현해보려는 시도가 바로 한국어꺼짐모드 학습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체험은 영어공부를 위해서 명상상태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 마음의 평온을 얻는 길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꺼짐모드 학습법의 기법들을 충분히 숙달한다면, 영어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어공부와 더불어 정신적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길을 보여줄 선구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여기에 외국어 학습 도중 아주 깊은 명상상태를 체험한 장태영 선생과의 대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와 나눈 이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한때 운동권 학생으로서 전혀 명상과 관련 없을 듯한 삶의 길에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삶으로 들어서게 된 특이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뷰어)

운동권이셨을 때 누군가에게 늘 쫓겨다니는 느낌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늘 내 의식의 배경이 나를 관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계기였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의식이 항상 긴장상태로 있었고, 내면을 바라보는 자세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해져 있었죠. 제대 후 감시가 없는 가장 자유로운 공간인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내면으로 빠져들었고, 그런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집중력이 강해져 자연스레 위빠사나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생활화되었던 거죠. 또,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항상 나의 내면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남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본다고 해서 내가 왜 이렇게 긴장을 하는지 의문이 생기게 됐어요. 그것을 계기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생각의 뿌리들이 다 일어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따라 고구마들이 딸려 올라오듯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들이 연이어 올라 올 때는 한 달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은, 그동안 뭔가 내 언어로서는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좋은 말들이 그냥 버려진 게 아니고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들이 다시 떠오르니까 그 의미를 해석해야 했고 해결하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내 몸에 숙제가 생긴 것이니까요.

편안하게 쉬려고 하면 더 많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내 잠재의식에 남아있던 모든 생각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들의 인생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산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지는 지점까지 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괴로우니까요. 자기가 미완성이고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을 볼 때, 방어하기 위한 기제로써 형성된 자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아의 뿌리를 밝히려려고 할 때, 자기 내면에 대해 정직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근원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표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라면 다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겠지요.

뿌리 밑을 다 보고 근원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이 거꾸로 나옵니다. 이때 내면에서 느껴지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의 언어가 고등 언어이면 그 사람은 고등 언어로 표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표현을 하겠죠.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그 세계는 똑같이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표현할 겁니다.

어쨌든 이때까지는 내가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미지화 시키고 어떻게 할 거라는 목표를 세우는 삶을 살아왔는데, 사실 좋은 말을 들어도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 때는 그 말이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취했지요. 그리고 나에게 부가하는 게 많을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졌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삶이 거꾸로 바뀌어서 내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서 형성되나 하면 대지에서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의 근본인 대지를 본 것입니까? 그 대지를 누가 봤습니까?

대지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없어지는 점, 모든 것이 없어지는 점을 나는 대지라 부르는 겁니다.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뿌리가 생기는 부분을 찾아서 내려가니까 뿌리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뿌리가 다 없어지는 그 시점에 왔을 때는 한 달 정도 잠을 못 잤던 것입니다.

그럼, 그 한 달 동안 밤에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아침에는 또 시간 되면 학교에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제

내면의 양심선언이 나왔어요. 어찌 보면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가 학교 제적을 당했을 당시의 학과장님이 복학을 했을 때도 계셨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 선생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서 보니까, 제가 100% 잘하고 선생님께서 못했던 게 아니었던 거지요. 그때 웅졸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모티브죠. 그게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더군요. 저절로 울음이 나오고... 한 달 동안 잠을 자면서 저절로 울음이 나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스스로 부끄러운 점을 인정하고 근원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것이 가라앉았지요. 이성적인 상태로 볼 때 다섯 살 때와 열 살 때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작은 울타리 속의 자아를 내 것인 양 간직하고 그것을 안 다치게 하려고 방어를 했었는데, 그 자아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보니까 그것과 맞닿아 있는 광대한 대지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자아가 없어지죠. 나의 자아가 특별히 없다는 것은 남의 자아를 그대로 수용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나와 통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다 와 닿죠. 내가 생각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I.Q. 130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I.Q. 130하고는 차원이 다른 두뇌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의 두뇌로 그 상태를 가지면 전방위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두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가지면 내 자아에 필요한 것만 두뇌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전방위로 연결할 수 있는 두뇌가 되는 거죠. 자기 자아 속에 있을 때는 조금만 달라도 금방 다르다는 걸 아는데 거기서 벗어나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외형상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다는 거죠. 씨가 달라서 모습이 다르게 보일 뿐이지, 뿌리가 자라나는 형성과정에서 보면

근원적으로 형성되는 시스템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깊게 철학을 하다가, 모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근원에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1C는 외형을 똑같이 통일해서 유행을 시켜가는 게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내면을 각성 상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고문 받을 때 5일간 잠을 못 자게 하여 괴로운 중에 똥기를 터득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강제징집을 당해서 영창에 5일간 들어갔는데, 밤 10시~아침 6시까지 취침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초가 1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면서 지켜보는데, 우리가 잠을 시체처럼 똑바로 자지 않으면 기상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열 몇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자지 않으면 모두 다 기상을 시켜요. 사람이 자다 보면 코를 골 수도 있고, 무의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꾸 깨우니까 5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죠. 5일 동안 화장실도 한 번 못 갔어요. 놀라운 것은 그것도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더 길어지면 어떤 육체적인 반응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5일 후에는 다시 몸이 느슨하게 풀어지는 보안대를 갔었어요. 진술서를 쓸 때는 여기에서의 일을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수치로 남는다면 부끄러워서 이것조차 얘기를 못하겠죠. 그런데 그것들의 모든 집합체가 나를 각성시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모든 것이 다 말이죠.

수행을 하기 위해 산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상을 통해 수행의 과정을 밟았던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수행이었던 거죠. 위빠사나, 묵조선, 화두선들이 있는데 한 달간 저한테도 잠존되어 있던 화두가 떠올랐던 거죠. 어찌 보면 내면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위빠사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는 삶이 그렇게 주어져 버린 것이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도 제 자아가 삶에 그렇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그것이 주어진 것이니, 모든 것이 다 수용되더라고요.

어쨌든 잠을 못 잔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것일 뿐, 아침에 기상하면 똑같아요. 5일 동안 의식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4시간 내내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밖에서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나도 나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5일 동안 지냈어요. 만일 그런 경우가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음에는 잠이 안 들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잠을 잘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1시간마다 새로운 사람이 자꾸 오니까 잠이 들려고 하면 깨우고 해요. 그러한 일을 계기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슬픔이나 괴로움, 기쁨 이런 것들은 어때요?

기쁨과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있다고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같이 있을 때 '아! 기쁘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더 달라질 것도 없고, 슬픔이라고 여기는 것도 대지와 맞닿아져 있을 때는 나쁘다는 것도 없지요. 그냥 그 슬픔이 슬픔으로만 존재하도록 맞닿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희로애락이 다 있겠죠. 이런 것을 즐거움이라고 했고, 저런 것을 노여움이라고 하듯 다 있는데 이 모두가 대지에 맞닿아져 있음을 볼 뿐, 그 자체에 함몰되지 않을 때, 그것 자체가 자신을 넘어서지 않을 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만약 진정한 벗을 만났다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대지 속에서 같이 그분을 만났다면, 직접 만나는 즐거움이 있겠죠.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즐거운데 그 사람이 항상 안 보여도 같이 있는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면 더 안 좋겠어요? 그런 즐거움이 인간에게는 다 있죠. 그러나 그 즐거움을 넘어서 있다는 것은

그 즐거움을 넘어서 있다는 것은 그것이 즐겁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즐거움을 취하려고 애착을 한다는 것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그것이 즐겁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즐거움을 취하려고 애착을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이제부터는 외국어 공부와 연계해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통해 아주 깊은 명상상태를 체험하셨는데, 변화를 체험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대학 도서관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던 중입니다. 프랑스어 공부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서 어떤 단어들은 한국어 단어처럼 단어를 듣자마자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머리 속에서 번역하지 않고 말입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어 학과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이미지에 관한 교재를 읽고 있었지요. 어느 순간 프랑스어  
단어들이 마치 내가 프랑스인인 것처럼 한국어의 개입 없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생생한 그림으로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그 그림에 취한 것처럼 황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그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고 작용이 정지하고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한국어로 사고해오던 어떤 틀,  
시스템에서 빠져 나와 버린 것이지요. 그때부터 생각의 뿌리를 보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신념체계가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자라나면서 형성되어 온 것이라는 점과, 왜 어떻게 그렇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근거를 알게 되었지요. 그것이 시작된 첫 지점을 말입니다.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 낱알이 떠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약 한달

간은 참회의 나날이었는데, 과거의 일들이 무수히 떠오르고 그 하나 하나의 일들이 모두 그 바닥을 드러내며 생생히 살아나서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식의 근원지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생각하는 자아의 모든 구름이 걷히게 된 것입니다.

언어 학습과정이 곧 의식의 근원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언어는 실은 심상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하지요. 심상 속으로 몰입한다면 언어는 불필요합니다. 노자가 “뜻을 알면 상을 버린다”고 한 말이 생각나는군요. 언어 공부에 몰입하고 있었던 그때 나의 두뇌는 알파파 상태라고 말하는 고도의 몰입상태에 도달해 있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미지가 떠오른 뒤에는 언어가 필요 없는 상태, 언어가 나오기 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의 모든 신념체계를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었지요. 자아의 생각에 매여 있던 내가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한국어로 사고하는 체계도 그 거울로 비추어 보니 나의 본 모습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어는 그 거울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도구이기는 하지만 프랑스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나는 한국어 사고체계도 아니요, 프랑스어 사고체계도 아닌 그 무엇도 다 될 수 있는 이름 없는 무엇이더라 말입니다. 나의 변화의 계기는 바로 이 언어체계로부터의 이탈입니다. 그 당시 내가 읽고 있던 프랑스어 교재가 바로 이미지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 후에 논어를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이 나의 참회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죽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때 나를 진정시켜 준 것이 노자와 장자의 책이었습니다. 책을 통해 노자와 장자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습니다. 지난날의 나는 자아라는



틀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했기에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한 것이므로 용서하고 이해한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모든 이들의 행동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옳은 것이지요.

그런 체험을 언어 학습의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반복학습과 주입식 교육으로만 공부해 왔던 내가 그런 이미지에 관한 프랑스어 교재를 접하게 된 것은 아주 큰 행운이었습니다. 한 언어의 틀에서 빠져 나와 다른 언어의 틀 속으로 들어가기 전, 그 중립적인 상태, 바탕, 토대, 의식의 밑바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이 중립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언어의 체계를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처럼 새롭게 독립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의 영어 학습법은 한국어의 방에 영어를 가지고 들어와 한국어의 체계를 빌어서 영어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 년 이상 영어를 배우고도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영어는 영어의 방을 따로 만들어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영어를 쓸 때는 영어만으로 생각하고 영어만으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마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물론 단어실력이나 문장력은 부족하겠지만 어린아이의 말처럼 하더라도 한국어의 체계에 의해 전혀 간섭받지 않고 할 수 있다면,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 창의력과 집중력이 아주 많이 길러질 것입니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은 바로 이런 창의력, 집중력이 강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무한한 능력이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마음상태가 대중적으로 가르쳐지는 날이 오면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 사람들은 모두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등과 투쟁은 없어지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혁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군요.

그렇지요. 국제 정치나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남이라는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아의 사고 체계에서 빠져 나와 보면 나와 남이라는 생각이 어리석음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이 깨달음의 거울로 비추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열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 전체가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사회가 머지않아 오리라고 봅니다.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도 이런 학습법, 즉 암기식과 주입식이 아닌 스스로의 잠재능력이 발현하게 하는 방법이 확산되어 나간다면, 엄청난 변화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컴퓨터가 아주 발달되어 그 동안 인간의 좌뇌가 맡아왔던 분야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컴퓨터와 같은 지적 능력은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조적인 능력을 발달시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뇌와 좌뇌가 만나 통합되는 시대입니다. 우뇌는 진화 발달의 과정상 훨씬 먼저 발달했고 좌뇌가 발달하기 전에는 인간의 삶을 주도해온 것인데, 좌뇌가 발달함에 따라 그 기능이 안으로 감춰져 온 것입니다. 이제 우뇌의 능력이 다시 드러나 좌뇌와 협력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우뇌와 심층뇌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식혁명Power vs Force》(한문화출판사)의 저자)의 말대로 무한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미래 사회에서의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좌뇌와 우뇌를 모두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편협한 사고, 자아에 구속된 사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오고있습니다.

의식의 근원을 '거울'이라 표현하였는데 그러한 실체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거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노자의 말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 말을 하자면 ‘존재’ 그 자체라고 할까요. ‘원래의 있음’은 영원히 변함 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삶은 그것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깨달음은 같지만 표현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경험이 풍부할수록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많겠지요. 각자가 걸어온 길에 따라 표현을 하게 되는데, 나는 외국어 공부를 하다가 이것을 알았으니 의식각성을 영어공부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내면의 거울을 발견하고 나니 손에 닿는 모든 고전들을 다 비추어 보게 되었는데, 옛날의 글들은 시(詩)적인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상징적인 언어들을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언어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좌뇌적 사고방식입니다. ‘거울’을 보게 되면 자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되지만, 어린이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좌뇌가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우뇌와 좌뇌가 통합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각성의 상태는 자아가 없는 것인데 경험자인 자아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의식으로 그 체험을 상기할 수는 있지요. 그때는 자아가 개입을 합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글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근원적 각성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게 되는 거지요. 깨달으면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허상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국어의 뿌리는 아주 깊은 것인데 그 모국어 틀의 밑뿌리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체계의 밑바닥을 보는 것입니다. 의식을 지닌 채로 언어체계, 즉 사고의 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신념, 기억을 버린 상태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이 상태가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상태입니다. 진리는 자아를 넘어서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아 속에서 이를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 우뇌와 근원 의식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뇌는 좌뇌보다 본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뇌가 선천적 뇌라면, 좌뇌는 자아가 형성되어 가면서 후천적으로 발달되는 영역입니다. 의식이 무의식과 만날 때, 좌뇌와 우뇌가 통합될 때 우리는 자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는 것이지요. 과학적 사고가 발달함에 따라 우뇌가 무시되어 왔으나, 이제는 좌뇌가 한계에 도달하여 다시 우뇌의 영역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과학자들이 그동안 비논리적이라고 배척해왔던 동양의 신비적인 가르침들을 놀란 눈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뇌의 영역에서만 이 동양의 신비적 지식들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가 통합된다면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뇌가 바로 현 상황의 돌파구입니다. 벤처기업의 등장이 바로 우뇌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좌뇌형 인간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우뇌형 인간은 병에 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본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곳은 무엇이든지 무한히 샘솟아 나오는 바탕입니다. 그것은 말로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옛 스승들은 이심전심, 불립문자라는 등의 말을 한 것입니다.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자아의 너머에 있지만 표현하려면 결국 자아를 빌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보이는 숨어있는 현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깨달은 자들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겉으로 화려한 인물들은 대다수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르지예프(George Gurdjieff)의 스승들도 모두 평범한 직업을 가진

*21C는 외형을 똑같이 통일해서 유행시켜가는 게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내면을 각성 상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깨닫고 나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우뇌의 용량은 무한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말한 거울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거울은 무엇이든 다 비출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보면 다 수용할 수 있고,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습니다. 좌뇌식으로 내용을 암기하려고 한다면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모든 책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며 수용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면 거기에는 한계가 없는 거죠. 거울은 어떤 것을 비추다가 다른 것을 비추게 될 때 이전의 것을 잊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그것을 비추게 될 때는 또 그것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비추지 않을 때는 침묵만이 존재합니다. 그저 가만히 본래 모습으로 있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면 무위도식하는 인간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것이 본래의 모습대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비출 필요가 없을 때는 항상 본래 상태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고요한 상태에서는 모든 기억이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도서관에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노자와 장자를 읽고서야 그들이 말한 도의 세계가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지요. 나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미지로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했어도 잘 표현하지 못했던 그것을 노자와 장자는 아름다운 언어로 잘 그려놓았더군요. 좌뇌가 지나치게 우뇌를 억압한 경우는 우뇌의 능력이 되살아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회복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회지에서 자란 사람보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열린 마음으로 자란 사람들이 천재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지요. 지식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이 창의성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는데 하루빨리 교육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지식축적이나 계산능력만 가지고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지요. 컴퓨터는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개발해야겠지요. 이제 인간이 살아 숨쉬는 교육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시행되는 교육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좌뇌와 우뇌가 통합되는 교육과정이 제도화되어 초등학교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지 교육을 초등학교의 언어교육에 적용하면 상상력이 풍부하고 근원적인 지혜와 너그러운 성품을 지닌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겠지요. 언어의 세계를 초월한 곳에서 진정한 지혜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언어로 사고하지 않고 이미지로만 사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론은 그 이미지 세계를 기호와 언어로 설명해 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많은 명상법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상의 방법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명상인들의 문제점은 생각을 억제해서 고요함을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자아의 사고구조가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이지요. 진정한 이해만이 우리를 심층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아의 행위를 멈출 때, 진정한 이해가 찾아옵니다. 외국어 학습 시에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국어를 사용하여 사고를 하면 사고의 내용과 과정을 지켜보는 힘을 얻기가 힘들지만, 외국어의 경우는 우리가 다시 언어를 습득하기 전의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지켜보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기가

쉽습니다. 이때, 모국어의 개입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모국어가 개입되면 이 새로운 상태의 체험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찾고 나면 모든 사고과정을 투명하게 바라 볼 수 있게 되지요.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말입니다. 깨닫고자 노력하며 엄청난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붓는 사람들이 많습디만,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는 도중에도 깨달음이 오는 거지요.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수행하면 깨닫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 하면 그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이제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리라 봅니다. 이 명상 학습법이 널리 알려지고 시행되면 그런 세상이 오겠지요. ‘우뇌혁명’, ‘의식혁명’, ‘세포혁명’이란 말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뇌혁명’이 나올 때인가 봅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장태영**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프랑스어 전공. 졸업 후 외국어학원 운영. 현재는 부산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음. '깨달음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적이 있음.